

장-미셸 오토니엘

꿈의 정거장

글 김정아 기자 |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우리에게 매력적인 유리조형물 설치작업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의 대표적인 현대미술가 장-미셸 오토니엘(Jean-Michel Othoniel, 1964~)의 개인전 《검은 연꽃(Black Lotus)》이 국제갤러리에서 개최된다. 그의 한국 전시는 지난 2011년 플라토에서 열렸던 개인전 《My Way》 이후 5년만이다. 오토니엘은 지난 25년간 개인적인 삶이 반영된 독자적인 조형세계를 추구해 온 작가이다. 이는 작가 고유의 의식과 경험이 다채롭게 발현된 것으로, 현대미술의 특정 계보에 편승되지 않은 개인적 성취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한국을 방문하며 문화·종교적 의미를 지닌 '연꽃'에 영감을 받아 제작된 신작 1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검은 산화 알루미늄 조각 《검은 연꽃》과 더불어 동일한 제목의 평면 작업들은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석판화 연작이다. 내밀한 시적 감성이 농축된 조각들은 낯설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꿈을 향유하고픈 작가의 소망을 담고 있는 듯 했다.



《검은 연꽃》, 2015, 설치 전경

오토니엘의 My Way

1980년대 말, 프랑스와 유럽 미술계는 1970년대부터 주류를 형성해 온 미니멀리스트들과 정치적이고 장식적인 화풍의 화가들로 이루어진 신구상주의라는 새로운 세대들이 대립하였다. 1970년대 회화 양식들 중 하나였던 '패턴과 장식(Pattern & Decoration)' 운동¹은 수공예로 여겨졌던 예술형식이 창작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고 이는 프랑스의 미술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현대미술에서 공예와 장식이 지닌 미적 가능성에 대한 관심의 표현은 오토니엘 작품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작가로서 활동을 시작할 무렵인 1980년대 말,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1911~2010), 아네트 메사제(Anette Messager, 1943~), 소피 칼(Sophie Calle, 1953~) 등 많은 여성 예술가들과 친분이 있었고, 이들의 영향을 받아 공예와 지수 등의 작품을 통해 여성적인 감성을 전달하고자 했다.

"나의 모든 작품은 자화상이다."

1992년 카셀 도큐멘타에 소개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오토니엘은 우황, 인, 왁스, 유리 등 독특하고 희귀한 재료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재료의 아름다움과 혐오감 사이를 오

가는 양가성은 그의 작업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이러한 특징은 신체에 대한 언급으로 이어지며, 1990년대의 몸 담론이나 성 정체성 논의와 같은 맥락에 놓인다. 1990년대 중반부터 강인함과 연약함을 겸비한 우리의 무한한 색채와 예술적 가능성을 발견한 이후 오토니엘의 작업은 장식적으로 발전하며, 유리의 조각적 특성을 넘어 새로운 기념비성을 실현하기에 이른다. 신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장신구인 목걸이를 건축적 규모로 확장시킨 독자적인 조형방식은 시각영역의 풍요로움을 개척했다고 평가된다. 2011년 3월, 파리 퐁피두센터에서 그의 대규모 회고전 《My Way》가 열렸다. 초기작부터 대규모 유리 설치작업에 이르기까지 오토니엘의 독자적인 조형세계를 소개하는 계기를 마련한 이 전시는 세계 순회전으로 이어져 그해 9월 삼성미술관 플라토에서도 개최되었다.

시(時)적 오브제: 검은 연꽃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던 오토니엘은 소통하기 위해 작은 시적 오브제들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타인과의 공감과 소통을 최

¹ 미국에서 일어난 미술운동으로 신장식주의(The New Decorativeness)라고도 한다. 이 운동은 당시 부정적인 의미로 통용되었던 장식의 복권을 주장하면서 미술람, 비잔틴, 헬트 문화의 장식과 문양이 가진 아름다움을 작품에 반영하였다.





〈보라색 연꽃〉 유리 거울, 스테인리스 스틸, 130×120×120cm Photo: Antoine Cadot Courtesy of Jean-Michel Othoniel Studio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 Jean-Michel Othoniel ADAGP, Paris – SACK, Seoul, 2016

종의 목표로 하지 않았던 그의 작품 세계는 어찌 보면 고립된 섬과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의 작품은 역설적이게도 관객과의 감정이입이 자유롭고 쉽게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작가가 다루는 재료들은 물리적 특성상 ‘변형’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오토니엘은 한동안 유황을 사용하여 비정형적인 형태의 성적인 이미지를 제시하다가 유리를 주재료로 선택하면서 바로크적인 작품들을 제작하게 된다. 천연 유리의 원료가 된 흑요석은 용암이 식으면서 생성되는 천연광물로 매우 검고 불투명한 것이 특징이다. 오토니엘은 유리의 패인 자국이 온도에 의해 사라지거나 다시 나타난다는 점에서 유리가 기억을 지닌다고 보았다. 즉 유리는 물질영역에 속하면서 상상력이나 기억이라는 비물질적인 영역까지 아우르는 연금술적인 재료인 것이다. 작품의 재료는 액체와 고체를 오가며 순환적인 시간을 되풀이함으로써 유약함 속에서 견고함을 추구하는 작가 자신과 닮아있다.

“나의 작업에서 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꽃의 숨은 의미나 상징은 매력적인 것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

국제갤러리 전시를 위해 제작된 〈검은 연꽃〉은 프랑스의 낭만주의 시인 보들레르의 ‘악의 꽃’과 랭보의 ‘보이지 않는 찬란함’에서 영감을 받아 모순된 단어의 조합에 양가적인 가치를 표현한 작

품이다. 다양하게 변형되는 연꽃의 형태가 모티프가 된 이 설치 작품은 작가가 진행해 온 유리구슬 조각들의 일환이긴 하지만, 기존의 유리가 아닌 산화 처리된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육중한 느낌이 더해졌다. 오토니엘은 불교의 상징이자 영혼과 마음을 깨우는 순결을 의미하는 연꽃에 대한 정신성을 새롭게 탐구하였고 이를 표현하고자 검은색, 금색, 보라색과 같은 제한된 색상을 사용하였다. 또한 백금박을 여러 차례 입힌 캔버스 위에 잉크로 이미지를 그린 동명의 대형 캔버스 회화는 오토니엘이 최초로 선보이는 평면작업으로 한국에 처음 소개되는 것이다. 작품에 사용된 짙은 검은색 석판화 잉크는 동양적인 붓글씨의 유동적인 제스처를 환기시키며 그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한편 이 연꽃이 지니는 생명력과 동적인 요소는 2015년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에 설치된 분수 조각상 〈아름다운 춤(Les Belles Danses)〉에 영감을 주기도 하였다.

일상에서 만나는 마법의 세계

오토니엘의 작품은 장식적인 요소가 지배적인 연극적 공간을 연출함으로써 낭만주의 미학 개념을 환기시킨다. 전시장 천장에 매달린 〈파란 연꽃(Blue Lotus)〉와 〈분홍 연꽃(Pink Lotus)〉은 거울 유리로 되어 있어 주변 이미지들을 여러 겹으로 반사시킨다. 이 작품들은 오랫동안 오토니엘 작품의 주요 주제였던 자크 라캉의 이론에서 착안한 세 개의 매듭을 형상화한 것이다. 라캉은 세 개의 고리로 이루어져 하나가 끊어지면 전체가 해제되어 버리는 매듭의 구조를 통해 인간 욕망 깊이 잠재하고 있는 상상계, 상징계, 그리고 실재계의 상호 의존성을 설명했다. 이 세 개



〈분홍 연꽃〉 세부, 유리 거울, 스테인리스 스틸, 120×120×120cm, 2015



의 매듭이 기하학적으로 묶인 채 반짝거리며 공중에 매달려 있는 구성은 자연과 우주의 섭리를 떠올리게 한다. 또한 그 영적인 아름다움이 주는 기묘함은 관람자로 하여금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예술가로서 나는 세상에 다시 마법을 걸고 싶다.”

2000년 파리고통공사에 의해 진행된 <야행자들의 키오스크(Le Kiosque des Noctamules)>는 지하철 역 입구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의 이미지를 구현되었다. 한쪽은 어둠, 다른 한쪽은 빛을 의미하는 왕관 형태의 두 개의 둠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형형색색의 유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낮에는 자

연광에 의해, 밤에는 가로등 조명에 의해 환상적인 빛을 발산한다. 오토니엘은 이 작품이 도시의 밤을 해매는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원했다. 이처럼 오토니엘의 작품이 놓인 곳은 황홀한 기쁨이 머무는 장소로서 존재한다. 그것은 현대인들의 지친 일상에 심포를 찍는,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좀 더 특별하게 만드는 꿈의 정거장이다. [4]

시계방향
<황금 연꽃>, 2015, 설치 전경

<아름다운 춤(Le Belles Danses)>, Versailles 2015, The Bourrée of Achilles, by night Fountain sculptures for the Water Theater grove, Gardens of the Palace of Versailles Photo: Philippe Chancel © Jean-Michel Othoniel / ADAGP, Paris-SACK, Seoul, 2016

<야행자들의 키오스크(Le Kiosque des Noctamules)>, 2000, Entrance of the subway station Palais-Royal-Musée du Louvre, on Place Colette, ©Stephen Alvarez



장-미셸 오토니엘 | Jean-Michel Othoniel

장-미셸 오토니엘은 1964년 프랑스 생테티엔(St. Étienne) 태생으로 어려서부터 예술가 집안에서 자라나 일찍이 예술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으며, 1989년 프랑스 파리-세르지 고등미술학교(E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ts, Cergy-Pontoise)를 졸업하였다. 1985년부터 조각과 설치, 미디어 작품으로 꾸준히 전시 활동을 하였으며, 유희를 소재로 한 조각 작품으로 1992년 독일의 카셀 도큐멘타에 참가하여 이름을 알렸다. 1990년대 후반부터 유리로 목걸이를 만드는 독창적인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으며, 2005년 아트바젤에서 선보인 <눈물의 배(Le Bateau de Larmes)>를 통해 세계 미술계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2011년 첫 회고전으로 파리 종피두센터에서 열린 <My Way>전을 시작으로 서울 삼성미술관 플리토, 일본 하라 현대미술관에 이어 마카오와 뉴욕에서 순회전을 가졌다.